

【제77차】 러시아 철학의 현황

Ilia Kassavine(러시아 사회과학 연구소)

이미 1960년대부터 러시아 철학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조금씩 해방되고 있었다. 이 해방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정신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학문의 위기가 도래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 국한된 위기일 뿐이다. 러시아의 위기는 사회 경제적 것이지, 지적인 위기가 아니다. 1987년 글라스노스트 이후 사상의 자유가 허용됨으로써 바야흐로 러시아에는 지적 르네상스가 도래하여,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연구되어 온 신실증주의와 비판적 합리주의 등의 지적 사조가 부각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주의가 쇠퇴한 이후 러시아에는 새로운 지적 사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철학을 과학으로 구축하려는 마르크스주의의 시도에 대한 반동으로 “비합리주의”가, 서구의 영향인 마르

크스주의에 대한 반성과 ‘러시아 고유의 길’에 대한 열망을 힘입어 “민족주의”가, 추상적인 철학 대신에 구체적인 삶을 사유하는 러시아의 ‘새로운 철학적 권리’의 산물인 “실용주의”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비합리주의는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그 성과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 분석적 사유와 통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용주의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러시아 정신의 새로운 방향에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다양한 개념, 이론, 방법, 그리고 문제 해결의 다원성이 철학 자체의 근본적인 사태임을 신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요소이다. 또 철학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나 직접적인 국민의 관심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 번째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확장되었으며, 개별 인간이나 언어, 국가와 종교 등이 새로운 사유 방식의 중심 개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세 번째 요소이다. 곧 “일원성에서 다원성으로의 방향 전환, 논리성에서 우연성으로의 방향 전환, 이성에서 실존으로의 방향 전환”이 러시아 철학이 나

아갈 길이다.

확실히 오늘날 러시아 철학은 위기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한 모든 철학이 갖고 있는 위기일 뿐이다. 이 위기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출발을 선택한 이상, 새로운 철학적 영역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러시아 철학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제79차】 How can Reason be Theoretical?

Peter Railton(미국 미시간대학 교수)

추리(reasoning)는 관념들에 대한 것이며, 심리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리가 여러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충동, 감정, 욕구, 느낌 등)을 지배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가? 나는 흄의 이론이 이 철학적 퍼즐에 대한 적절한 해답의 단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흄으로부터 믿음에서의 이성적이고 규

범적인 인도(guidance)를 떠받치는 심리학적 하부구조를 읽어 낼 수 있다. 흄에게 믿음은 감성의 작용이지, 인지의 작용이 아니다. 즉, 믿음은 단지 특별한 느낌 혹은 감성이다. 그것은 활동성이 없는 관념에게 사고 및 행동을 인도하는 힘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관념 혹은 표상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어떻게, 사고 및 행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유에 반응(responsive to reason)할 수 있는가? 나는 이에 대한 대답은